

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와 객관적 경제구조*

Household Economic Structure and Subjective Evaluation on Economic Status of Households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김민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교수 이희숙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Min Jeung Kim

Department of Housing, Interior Design &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Hee Soo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문헌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economic structures differ among four different household groups('enough', 'so so', 'a little difficult', 'very difficult') classified by subjective evaluation on their economic conditions. The data were drawn from 2004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du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and χ^2 -test and F-test were utilized by SPSS for Windows 10.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ing. First, the economic levels of household groups of 'enough' and 'so so' showed to be higher than the average. This result implies that households tend to evaluate by themselves their economic conditions comparing to the others. Second, the deviations of average economic levels among four different household groups were relatively bigger in household economic elements of liquid asset, monthly savings and insurance than the others, and relatively smaller in household economic elements of total expenditure, especially expenditures in food at home, education, medical, communication than the others. Third, the households of 'a little

Corresponding Author : Hee Sook Lee, Department of Housing, Interior Design &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ungbongro 410, Gaeshindong Cheongjusi,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3148 Fax: +82-43-261-7166 E-mail: leehs@chungbuk.ac.kr

* 본 논문은 2007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difficult' and 'very difficult' showed undesirable economic structures resulting from lack of savings and insurance for their future.

주제어(Key Words) : 가계(Households), 경제구조(Economics Structure), 주관적 경제평가 (Subjective Evaluation of Economic Status)

I. 서론

가계의 경제구조란 가계경제를 구성하는 요소인 소득, 지출, 자산, 부채구조 등의 특성을 의미하며, 경제상태란 가계경제의 수준을 의미한다. 경제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경제구조를 구성하는 요소의 실제 규모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으며, 소득, 자산 규모가 크면 단순히 경제상태가 높다고 평가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방법은 가계의 경제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 주며 가계간의 객관적인 상호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간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김년희, 안승철, 1999; 김정숙, 1996; 배희선, 최현자, 1996; 백은영 2004; 이상협, 1999).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합리적인 가계관리의 주요 목적이 객관적인 소득, 자산 등의 숫자적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들이 실제 생각하고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논거를 두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가계의 주관적인 경제상태의 평가는 주로 가족원의 경제적 만족수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백은영(2004)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객관적, 주관적 재정복지를 측정된 결과 객관적으로 동일한 경제상태의 가계 중에서도 경제적 만족상태는 다르게 나타나 경제적 복지에 대해 언급할 경우 객관적, 주관적 영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박미금(1994)은 가계재무의 객관적인 상황보다 이에 대한 주관적 지각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년희와 안승철(1999) 역시 경제생활 만족도는 객관적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면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경제에 대한 불안의식이 경제생활 불만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관적인 경제상태 평가 수준과 객관적인 경제상태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족수준은 일반적으로 기대수준과 실제수준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과 같이 경제적 만족수준 역시 기대하는 경제수준과 현재 실제수준의 차이로 결정된다. 그리고 경제적 기대수준은 한 사회의 경제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주변의 준거집단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경제적 향상과는 상

관없이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은 향상이 없는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계경제의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수준 혹은 경제구조의 특성이 이들의 주관적인 경제수준과 어떤 일정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계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상태에 따라 가계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객관적 경제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관적인 경제상태와 객관적인 경제구조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재무상담 혹은 재무교육프로그램 제작시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재정복지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상태와 실제 가계의 경제구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II. 문헌고찰

1. 주관적 가계 경제상태의 개념

주관적 지표를 이용한 가계의 경제상태 평가는 이론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요구와 그 요구를 위해 이용 가능한 가계경제자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가족구성원의 요구와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상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경제상태와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가족원의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표준에서 일부 비롯된다. 생활표준은 희망하는 생활의 수준을 의미하며 생활표준 수준이 높은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객관적으로 동일한 경제상태 하에서도 서로 다른 주관적 경제수준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2. 주관적 경제상태 측정과 생활표준

선행연구에 나타난 주관적 가계 경제상태 측정은 생활표준을 어디에 두는 가로부터 시작된다. 생활표준의 기준은 가

족구성원 스스로가 정하거나, ‘작년보다’ 혹은 ‘내년에는’ 과 같이 어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특정 준거집단, 특히 이웃이나 일반적인 도시가계 등을 표준으로 하여 재무상태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즉, 경제성장이 되어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화를 적게 소유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관적 재무상태는 낮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년희, 안승철, 1999; 김정숙, 1996; 배희선, 최현자, 1996; 이상협, 1999).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계 스스로 정한 생활표준

가계 스스로 정한 생활표준을 기준으로 주관적 경제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주관적 재무상태 평가는 소득 적정감 혹은 자산 적절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득 적정감은 현재소득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고, 가계를 유지하기에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자산 적절성 역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생활에 어느 정도로 적절한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정도를 나타낸다. Hafstrom과 Dunsing(1973)은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을 연구한 결과 소득 적정감이 생활의 질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Williams, Nall과 Deck(1976)은 일정하고 규칙적인 소득을 가진 가계소득 적정성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소득에 대한 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상협(1999)과 김정숙(1996)은 가계소득과 자원이 적절하다고 인지할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실제적인 가계소득의 양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인지정도가 중요하며,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사치재 이상의 소비를 요구하거나 주관적으로 적다고 인지한다면 경제적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2) 타인을 기준으로 한 생활표준

타인을 기준으로 한 생활표준은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이 이웃이나 친구 또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느끼는 지각정도로 경제상태를 측정하였다. Furnham과 Argyle(1998)는 사람들이 절대적 소득수준보다는 준거집단과 비교한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자신의 소득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상협(1999) 또한 타인과의 생활격차감이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끼쳐 이상적으로 바라는 생활표준과 현재의 실제 생활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김년희와 안승철(1999)은 친구나 이웃 또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비교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산증식과 주택마련, 자녀교육비, 위험대비에 대한 경제적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

였다. 김정숙(1996)은 다른 주관적 인지도 보다 준거집단 비교감이 경제적 만족도와 가장 큰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박미금(1994) 역시 타인이나 준거집단과의 비교감이 생활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혔다.

3)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생활표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생활표준은 현재 가계의 경제상태를 시간적 차원을 고려한 주관적 경제상태를 측정할 때 이용된다. 즉, 현재의 경제수준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과거의 수준과 비교해서 현재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경제상태를 높게 인지한다거나, 현재의 경제상태와 미래의 경제상태를 비교하여 미래에 지금보다 더 높은 경제상태를 예상할수록 재무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한다(김정숙, 1996). 또한 김년희와 안승철(1999)은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경제상태를 낙관적으로 인식할수록 자녀교육비와 위험대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미래의 경제상태에 기대를 가질수록 노후대비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종혜(1993)는 현재의 경제상태를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5년 후와 비교하였을 때도 역시 경제상태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일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 나타난 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는 주로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재의 경제상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형태의 질문과 함께, ‘만족한다’ 혹은 ‘만족하지 않는다’ 등의 응답을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경제상태 측정은 ‘현재의 경제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매우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중에서 1개를 고르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할 경우와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응답자들이 대답하였을 여지를 시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해석시 선행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가계경제구조의 개념과 측정

가계경제구조는 가계경제를 구성하는 요소의 특성을 의미하며, 가계경제요소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소득, 소비지출, 자산, 부채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경제요소 중 소득은 가계소비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가계복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왔으며(이희숙, 신상미, 2003), 그 출처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소

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강제적 지출을 제외한 실제 가계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가계경제요소는 지출이며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한다. 소비지출은 식비, 외식비, 주거비, 의복비, 교육비 등 가족원의 현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을 의미하며 이는 순자산의 실제적 감소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는 반면, 비소비지출은 저축, 보험료, 부채상환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순자산의 실제적 변동 없이 이루어지는 지출의 특성을 갖는다.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 구분하며 유동자산의 대부분은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에 축적된 모든 자산으로 주식, 채권, 펀드,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등을 의미하며, 그 밖의 유동자산 형태로는 불입하고 아직 타지 않은 계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자산은 주로 부동산 즉 거주주택, 상가, 토지 등을 포함하되 임차를 하면서 지불한 보증금도 금융자산만큼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실물자산에 포함된다. 부채는 금융기관 혹은 비금융기관(회사 등)을 통한 대출금, 할부잔액, 계를 타고 앞으로 불입해야 할 돈,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을 포함하며 부동산 임대시 받은 보증금 역시 일정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아울러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4년에 일반에게 제공한 「한국노동패널」자료 수집시 이용한 가계경제요소와 그 개념을 정리한 것이며 이를 제시한 이유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3. 가계경제구조 분석

가계경제구조 분석은 가계경제요소를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절대액과 재무비율에 기초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절대액에 기초한 가계경제구조 분석

절대액에 의한 가계경제구조의 분석은 가계 간의 객관적인 상호비교 및 평가가 쉽다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다. 가계경제요소 중 소득은 총소득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소득원천이 다양하고 소득유입이 안정적인 때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소비지출은 총지출액 뿐 아니라 세부 지출비목의 지출액 수준이 높을수록 일

〈표 1〉 가계경제요소와 개념

구분		구성요소
소득	연간 가치분 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투자소득) · 부동산소득(월세 등의 임대료, 토지도지세, 권리금 등) · 사회보험(국민연금, 보험연금, 실업급여 등) · 이절소득(정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친척이나 친지보조금) · 기타(보험금, 퇴직금, 증여나 상속)
	소비지출	·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 외식비 ·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포함) · 보건의료비 ·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 경조사비 ·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 문화비 · 내구재 · 용돈 · 기타(의류비 포함)
비소비 지출자산	월평균 보험료	·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연간 저축액	· 예금/적금 · 계 · 개인연금 ·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월평균 부채 상환액	· 금융기관부채상환액 · 비금융기관부채상환액(회사를 통해 빌린 돈) · 개인적으로 빌린 돈(사채,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린 돈 등)상환액 ·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에 대한 상환액 · 미리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자산	유동자산	· 은행예금 · 주식+채권+신탁(투자자산) · 아직 타지 않은 계 ·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부동산자산	· 주택시가 ·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시가 · 주거를 위한 전(월)세/보증금으로 지불한 돈 · 주거이외의 부동산사용을 위한 전(월)세/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한 돈
	총자산	· 유동자산 + 부동산자산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
부채	총부채	· 금융기관부채 및 비금융기관부채(회사를 통해 빌린 돈) · 개인적으로 빌린 돈(사채,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린 돈 등) ·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 미리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총지출에 대한 세부 지출비목의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일반적으로 선택재의 특성을 갖는 지출비목에 대한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적 복지수준이 높고 필수재의 특성을 갖는 지출비목에 대한 비중이 높을수록 반대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비소비지출의 특성을 갖는 저축의 경우, 월평균저축률이 높을수록 가계경제의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평가되며, 보장성 보험료지출은 높을수록 경제적 위험에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지나친 지출은 다른 소비지출의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구조는 총자산의 수준 뿐 아니라 자산의 유형과 구성 비중 등의 특성을 분석하며 자산유형 중 유동자산의 규모와 비중은 가계경제의 경제적 비상에 대한 충분성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된다. 자산의 한 형태인 부채의 경우, 부채규모를 비롯하여 부채유형, 그리고 부채의 원인 등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며, 부채의 원인이 가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일 경우 악성부채로 분류하여 가계경제 평가시 고려한다.

절대액에 기초하여 경제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

로 집단간 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주부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한 연구(양세정, 2003, 2004, 2005), 가구주의 은퇴여부에 따라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한 연구(김연정, 1998; 김지경, 2005; 여윤경, 1999; 이희숙, 신상미, 2003),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한 연구(성영애, 양세정, 1997; 성지미, 이윤정, 2001; 임정빈, 김윤희, 2000; 정순희, 김현정, 2002; 한수진, 서지수, 2008) 혹은 중년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여윤경, 2005), 베이비부세대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허은정, 김우성, 2003)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재무비율에 기초한 가계경제구조 분석

(1) 재무비율의 개념과 평가기준

재무비율은 가계경제요소 중 2개 요소의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지표이며, 경제요소 각각의 절대액에 기초한 경제구조 분석보다 2개 이상의 경제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무비율의 종류와 준거기준은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 지표를 이용

〈표 2〉 재무비율 유형과 준거기준

재무상태 평가지표	재무비율	개 념	준거 기준	
가계수지 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가계소득에 대한 생활비의 비율로 소비성향과 적자 여부를 파악	낮을수록 좋음 < 0.9	
비상자금 지표	유동자산/월평균생활비	일시적인 소득 중단시 유동자산으로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평가	높을수록 바람직함 > 1	
안정성 지표	위험대비 지표	월평균보장성 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높을수록 바람직함. 지나칠 경우 현재 소비 위축의 위험	0초과 ~ 0.2 이하
	부채부담 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부채상환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채부담을 측정. 다른 소비지출에의 영향력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낮을수록 바람직함 < 0.25
		총부채/유동자산	유동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 평가. 추가대출여부 판단에 이용	낮을수록 바람직함 < 10
	총부채/총자산	총자산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지 부채청산능력 평가	낮을수록 바람직함 < 0.8	
저축성향 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계소득	저축성향을 통하여 가계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높을수록 바람직함 > 0.1	
성장성 지표	투자성향 지표	부동산/총자산	부동산에 대한 투자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지나치게 높을 경우투자자금의 유동성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킴 < 0.9
		투자자산/총자산	주식, 펀드 등 수익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자산보유액	높을수록 수익성은 높아 지나, 위험성도 함께 증가 < 0.1
	유동성 지표	유동자산/총자산	가계자산의 유동성을 알려주는 지표	높을수록 바람직함 > 0.1

출처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107-122.

하여 오다가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과 성영애(2003)가 한국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개발하면서 이 기준에 기초한 연구(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 2004;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최현자, 2004)가 진행되어 왔다. 김민정과 최현자(2007)는 최현자 외(2003)에 의해 개발된 재무비율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안정성지표의 경우 기준값이 낮게 책정된 경향이 있고 성장성지표의 경우 높게 책정된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투자성향지표 중 투자자산/총자산의 재무비율은 우리나라의 가계경제상태 평가지표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현자 외(2003)가 제시한 재무비율 유형과 준거기준이 본 연구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현자 외(2003)에 따르면, 가계의 재무비율은 크게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정성지표와 경제적 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성장성지표로 구분한다. 안정성지표는 가계수지지표 1개, 비상자금지표 1개, 가계수지지표 1개, 부채부담지표 3개 등 총 6가지 재무비율로 평가하며, 성장성지표는 저축성향지표 1개, 투자성향지표 2개, 유동성지표 1개 등 총 4개의 재무비율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표 2>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모든 재무비율에 기초하여 가계경제상태를 평가하였으나 다만, 부채부담지표 3개 중 가장 부채부담을 잘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의 재무비율만을 선택하고, 투자성향지표 2개 중 선행연구에서 부적절함을 시사한 것을 제외한 부동산자산/총자산의 재무비율만을 선택하였다.

(2) 선행연구

재무비율 유형 중 가계수지지표를 통해 경제상태를 분석한 연구로 양정선(1997)은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가계의 13.7%만이 가계수지지표 값이 1.0 이상의 수준, 즉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초과지출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반면,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한 최윤지와 최현자(1998)는 35.3%의 가계가 소득을 초과한 지출 상태에 있었고,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김연정(1998)은 30.6%, 김순미(1998)는 65세 이상 노인가계의 56.2%가 초과지출 상태에 있다고 하여 농촌가계와 노인가계의 경제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한 김년희(2000)의 연구에서는 57.3%의 가계가 초과지출을 보였다고 하였다.

비상자금지표는 월평균생활비나 월지출액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 나타내며 양정선(1997), 최윤지와 최현자(1998), 배미경(2001)은 3.0 이상(소득이 없을 경우 유동자산으로 현재의 지출수준을 3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냄)을 기

준으로 하였으며 양정선(1997)은 53.7%의 가계가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최윤지와 최현자(1998)는 농촌가계의 28.7%가 준거기준을 만족하였음을 기초로 농촌가계의 경제상태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위험대비지표는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 보장성보험료의 비율로서 보험료만으로 위험대비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으면 보험금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통하여 위험대비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한 선행연구는 최현자 외(2003) 연구 이전에는 없었으며 최현자 외(2003)는 이 지표에 대한 준거기준을 0 ~ 0.2로 제시하였다.

부채부담지표는 가계가 부채로 인해 가계운영상 느끼게 되는 부담과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여주는 지표로서, 선행연구에서는 총부채/유동자산의 비율 혹은 총부채/부동산, 총부채/순자산 비율을 부채부담지표로 사용하였다(김년희, 2000; 양정선, 1997; 최윤지, 최현자, 1998). 이러한 부채부담비율은 1보다 작을수록 미래 재무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선행연구 중 양정선(1997), 김년희(2000), 배미경(2001)의 연구에서는 총부채/유동자산 비율의 준거기준(> 1.0)을 만족하는 가계비율이 약 70%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농촌을 대상으로 한 최윤지와 최현자(1998)는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가 30.1%에 불과하였으며, 16.9%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태 즉, 총부채/순자산 비율의 값이 1보다 큰 경우임을 밝혔다. 부동산산을 이용하여 완전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는 부동산자산/총부채 비율을 이용하여 경제상태를 평가한 연구로 양정선(1997)은 7.2%의 가계가 부동산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저축성향지표는 소득 중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값으로 가계의 저축성향을 통해 미래 가계의 자본의 성장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최윤지와 최현자(1998)는 준거기준 0.1 이상을 이용하여 농촌가계의 경제상태를 측정한 결과 26.3%가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지표는 유동자산/총자산 비율로 긴급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경우 혹은 노년가계와 같이 자산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산의 증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기자금의 역할도 하여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유동성지표는 가계의 경제상태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선행연구(김년희, 2000; 배미경, 2001; 양정선, 1997)에서는 이 재무비율에 대한 준거기준을 0.25 이상, 즉 25% 이상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평가하였으며, 이 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는 매우 적으며 총자산의 대부분을 거주주택인 부동산자산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특성 때문이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최현자 외(2003)는 10% 이상을 준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희숙 외(2004)는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현자 외(2003)가 제시한 준거기준에 의해 경제상태를 평가하였으며,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정성 및 성장성지표 11개 모두 봉급생활자 가계의 준거기준 만족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주교육수준별 특성으로는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 모두 대졸이상 가계가 가장 높았으며, 고졸, 중졸 이하 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연령별로는 안정성지표의 경우, 부채부담지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구주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장성지표의 경우, 만족하는 가계 비율이 30대 이하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주택구입을 목표로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면서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택보유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안정성 및 성장성 지표 모두 전세가 여타 가계에 비해 높은 준거기준 만족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자산과 관련된 비상자금지표, 유동성지표, 저축성장지표는 전세와 월세의 경우 주택마련을 목표로 저축을 하되, 월세가구의 저축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과 동시에 자가보유 가계의 낮은 유동자산 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성영애 외(2004)는 이희숙 외(200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현자 외(2003)가 제시한 준거기준에 의해 경제상태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1개 안정성과 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계는 매우 드문 반면, 모두 만족하지 않는 가계는 77.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구주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의 준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안정성지표의 준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계의 특성은 서울에 거주하고 30대이면서 학력이 높은 봉급생활자임을 밝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객관적 경제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경제구조의 특성은 절대액과 재무비율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목

적은 주관적 경제상태별로 가계의 가치분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자산, 부채 구조의 특성은 어떠하며, 이러한 특성은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이며, 이는 1997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비농촌 지역의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면접 조사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2002년 동안의 가계자료를 2003년도에 조사, 2004년도에 일반에게 공개됨)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소득과 지출이 0의 값을 갖는 가계와 극단적으로 높은 가계는 제외시켰으며, 최종 1,957가구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경제구조 분석은 평균과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각 집단별 차이 검증을 위해 χ^2 검증방법과 F-test 및 Duncan 사후검증을 이용하였다.

3.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조사대상 가계의 구분

조사대상 가계는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경제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한국노동패널」질문 문항 중 「현재의 경제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우 여유가 있다」와 「여유가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가계를 「여유로움」집단,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가계를 「보통」집단, 「조금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가계를 「조금어려움」집단,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가계를 「매우어려움」집단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유로움」집단은 99가구로 전체 가계의 5.1%를, 「보통」집단은 867가구(44.3%), 「조금어려움」집단은 670가구(34.2%), 「매우어려움」집단은 321가구(16.4%)의 분포를 보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계는 가구주의 86.9%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30 ~ 40대가 절반 이상(55.9%)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 37.8%, 대학졸업 28.3%의 구성비율을 보인 반면 초등학교졸업 이하도 약 20%정도로 나타났으며, 주택보유율은 58.0%이다.

〈표 3〉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가구(%)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어려움	매우어려움	χ^2
가구주 성별	남	1700(86.9)	93(93.9)	799(92.2)	572(85.4)	236(73.5)	77.0***
	여	257(13.1)	6(6.1)	68(7.8)	98(14.6)	85(26.5)	
	계	1957(100.0)	99(100.0)	867(100.0)	670(100.0)	321(100.0)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104(5.3)	5(5.1)	63(7.3)	28(4.2)	8(2.5)	76.6***
	30 ~ 39세 이하	477(24.4)	29(29.3)	260(30.0)	148(22.1)	40(12.5)	
	40 ~ 49세 이하	616(31.5)	31(31.3)	256(29.5)	224(33.4)	105(32.7)	
	50 ~ 59세 이하	294(15.0)	12(12.1)	125(14.4)	103(15.4)	54(16.8)	
	60세 이상	466(23.8)	22(22.2)	163(18.8)	167(24.9)	114(35.5)	
계	1957(100.0)	99(100.0)	867(100.0)	670(100.0)	321(100.0)		
가구주 교육 수준	초등학교졸업이하	383(19.6)	9(9.1)	115(13.3)	150(22.4)	109(34.0)	145.1***
	중학교졸업	282(14.4)	9(9.1)	99(11.4)	104(15.5)	70(21.8)	
	고등학교졸업	739(37.8)	34(34.3)	346(39.9)	260(38.8)	99(30.8)	
	대학교졸업	553(28.3)	47(47.5)	307(35.4)	156(23.3)	43(13.4)	
	계	1957(100.0)	99(100.0)	867(100.0)	670(100.0)	321(100.0)	
주택 보유 여부	주택 소유	1136(58.0)	72(72.7)	536(61.8)	376(56.1)	152(47.4)	29.9***
	주택 미소유	821(42.0)	27(27.3)	331(38.2)	294(43.9)	169(53.6)	
	계	1957(100.0)	99(100.0)	867(100.0)	670(100.0)	321(100.0)	
평균 가구원 수		3.36	3.44 ^a	3.42 ^a	3.39 ^a	3.13 ^b	4.3**

*** $p < .001$.

조사대상 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기준으로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은 남성가구주가 93.9%인 것에 비해 「조금어려움」이나 「매우어려움」집단에서는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각각 85.4%, 73.5%로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가계의 재무상태를 더 어렵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노년기에 해당되는 60세 이상의 구성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대학졸업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용관행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음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좀 더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보유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은 75.7%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보통」집단 61.8%, 「조금어려움」집단 56.1%, 「매우어려움」집단 47.4%의 순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주택보유 여부가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평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평균가구원수는 「매우어려움」집단이 3.13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3집단(3.39명~3.44명)보다 적게 나타났다.

2. 절대액에 기초한 경제구조

주관적 경제상태별로 분류한 가계집단의 경제구조를 절대액에 기초하여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득구조

소득은 가치분소득의 개념으로 측정되었으며 연간총소득은 물론 월평균소득과 가구원 일인당 월평균소득 모두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유로움」집단은 전체가계평균(연 2,356만원, 월 196만3천원, 가구원 일인당 월 57만8천원)의 약 1.6배 수준을 보였으며, 「보통」집단은 약 1.2배, 「조금어려움」집단은 약 0.8배, 「매우어려움」집단은 약 0.6배 수준을 보였다. 가구원 일인당 월평균소득 역시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유로움」집단은 전체가계평균(월57만8천원)의 약 1.6배 수준을 보였으며, 「보통」집단은 약 1.2배, 「조금어려움」집단은 약 0.8배, 「매우어려움」집단은 약 0.6배 수준을 보였다.

소득유형 중 근로소득액의 특성은 총소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모든 집단에서 근로소득이 「여유로움」집단의 69%에서부터 「매우어려움」집단의 83%까지의 분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이 다른 세 집단

〈표 4〉 주관적 경제상태별 소득구조(n = 1957)

단위 : 만원, %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어려움	매우어려움	F
연간총소득	2356.0	3694.0 ^a	2830.6 ^b	1985.2 ^c	1435.6 ^d	108.8***
근로소득	2099.7	3264.1 ^a	2536.2 ^b	1777.4 ^c	1234.7 ^d	96.5***
금융소득	30.3	134.2 ^a	38.4 ^b	11.1 ^b	16.2 ^b	13.6***
부동산소득	65.2	141.3 ^a	83.8 ^{ab}	54.3 ^a	14.4 ^b	2.6*
사회보험	33.6	33.2	46.8	23.3	19.3	2.1
이전소득	84.3	105.1	72.4	79.6	119.8	2.2
기타소득	42.9	16.2	52.9	39.4	31.1	0.9
월평균 가계소득	196.3	307.8 ^a	235.9 ^b	165.4 ^c	119.6 ^d	108.8***
가구원 일인당 월평균소득	57.8	89.1 ^a	70.0 ^b	48.3 ^c	34.9 ^d	119.1***

*p < .05. ***p < .001.

〈표 5〉 주관적 경제상태별 소득유형 비중(n = 1957)

단위 : %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어려움	매우어려움	F
연간총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소득	80.5	83.4 ^a	84.1 ^a	80.8 ^a	69.1 ^b	15.4***
금융소득	1.4	3.5 ^a	1.9 ^c	0.8 ^{bc}	0.3 ^c	7.0***
부동산소득	3.1	6.1 ^a	3.5 ^b	2.7 ^b	1.8 ^b	2.9*
사회보험	2.4	2.1	2.4	2.8	1.7	0.6
이전소득	11.3	4.6 ^c	6.9 ^{bc}	11.1 ^{bc}	25.4 ^a	37.8***
기타소득	1.4	0.3	1.2	1.7	1.7	1.1

*p < .05. ***p < .001.

에 비해 절대액과 구성비율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았다. 반면, 이전소득의 경우 「매우어려움」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절대액과 구성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4, 5 참조).

2) 소비지출구조

월평균 소비지출액과 가구원 일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지출액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유로움」집단은 전체가계평균(월 130만9천원, 가구원 일인당 월38만7천원)의 약 1.3배, 「보통」집단은 1.1배, 「조금어려움」집단은 0.9배, 「매우어려움」집단은 0.7배 수준을 보였다.

소비지출 세부 비목을 살펴본 결과, 공교육비와 보건의료비의 경우에만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어느 정도 표준화된 공교육비 제도와 사회보험 특성을 가진 의료제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지출액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식비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은 전체가계평균(31만9천원)의 약 1.2배, 「보통」집단은 1.1배, 「조금어려움」집단은 전체가계평균과 동일한 수준인 1.0배, 「매우어려움」집단은 0.8배 수준을 보였다. 식비는 전체 소비지출의 경우보다 집단간 편차가 적은 특성을 가지며 이는 식비가 필수재의 특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선택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외식비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은 11만1천원으로 전체가계평균의 약 2.1배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보통」집단은 1.6배, 「조금어려움」집단은 0.5배, 「매우어려움」집단은 0.3배 수준을 보였으며 식비에 비해 집단간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사교육비와 통신비의 경우 「매우어려움」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 모두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경제상태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최대한 지출하거나 통신서비스가 필수재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의 세부지출항목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수준의 경향을 나타냈다(표 6 참조).

지출비중은 모든 세부지출비목에서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식비, 공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통신

〈표 6〉 주관적 경제상태별 소비지출액 구조(n = 1957)

단위 : 만원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어려움	매우어려움	F
월평균지출액	130.9	165.1 ^a	145.8 ^b	122.4 ^c	97.8 ^d	42.9***
· 식비	31.9	39.3 ^a	34.4 ^b	30.6 ^c	25.3 ^d	32.7***
· 외식비	5.3	11.1 ^a	7.1 ^b	3.9 ^c	2.0 ^d	74.7***
· 공교육비	12.4	12.3	12.3	12.6	12.3	0.0
· 사교육비	11.1	11.7 ^a	12.5 ^a	11.0 ^a	7.4 ^b	5.5***
· 차량유지비	12.7	16.9 ^a	15.5 ^a	11.1 ^b	7.6 ^c	29.2***
· 주거비	12.5	13.7 ^a	13.3 ^a	12.1 ^b	10.9 ^c	7.1***
· 경조사비	5.4	7.8 ^a	6.2 ^b	5.0 ^c	3.4 ^d	21.1***
· 보건의료비	4.9	5.5	5.0	4.6	5.2	0.8
· 문화비	2.6	4.8 ^a	3.2 ^b	1.9 ^c	1.5 ^c	25.7***
· 내구재	1.8	4.0 ^a	2.0 ^b	1.6 ^b	1.0 ^b	6.5***
· 통신비	9.7	10.4 ^a	10.5 ^a	9.6 ^a	7.6 ^b	12.7***
· 용돈	17.7	25.3 ^a	20.9 ^b	15.5 ^c	11.1 ^d	27.0***
· 기타	2.8	2.3	2.8	3.0	2.5	0.3
가구원 일인당 월평균지출액	38.7	47.7 ^a	43.3 ^b	35.6 ^c	29.6 ^d	64.6***

*p < .05. **p < .01. ***p < .001.

〈표 7〉 주관적 경제상태별 소비지출비중(n = 1957)

단위 : %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어려움	매우어려움	F
월평균생활비	100.0	100.0	100.0	100.0	100.0	
· 식비	28.6	26.6 ^c	26.5 ^c	29.5 ^b	32.8 ^a	19.7***
· 외식비	3.6	6.1 ^a	4.7 ^b	2.8 ^c	1.4 ^d	59.1***
· 공교육비	7.0	5.2 ^c	6.3 ^{bc}	7.5 ^{ab}	8.5 ^a	4.0**
· 사교육비	6.6	6.0 ^{ab}	7.1 ^a	6.9 ^a	5.0 ^b	3.7*
· 차량유지비	8.1	9.7 ^a	9.7 ^a	7.4 ^b	5.0 ^c	25.8***
· 주거비	11.6	9.3 ^c	10.7 ^{bc}	12.0 ^a	14.1 ^a	16.2***
· 경조사비	4.4	5.7 ^a	4.6 ^b	4.4 ^{bc}	3.5 ^c	5.1**
· 보건의료비	5.4	4.6 ^b	4.3 ^b	5.4 ^b	8.2 ^a	17.8***
· 문화비	1.9	2.6 ^a	2.1 ^b	1.7 ^b	1.9 ^b	6.3***
· 내구재	1.2	1.9 ^a	1.2 ^b	1.1 ^b	0.7 ^b	3.1*
· 통신비	7.5	6.3 ^b	7.4 ^a	7.8 ^a	7.3 ^a	3.3*
· 용돈	12.2	14.5 ^a	13.4 ^a	11.5 ^b	9.5 ^c	14.2***
· 기타	1.9	1.7	1.8	1.9	2.2	0.3

*p < .05. **p < .01. ***p < .001.

비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지출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필수재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나머지 비목은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선택재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소비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엔겔계수는 「여유로움」집단에서 26.6%, 「보통」집단 26.5%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조금어려움」집단은 29.5%, 「매우어려움」집단 3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02년 우리나라 평균엔겔계수 26.2(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2)와 비교해 보면, 「여유로움」이나 「보통」집단은 우리나라 평균 엔겔계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계는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교육비의 지출비중은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의 지출비중은 「매우어려움」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보건의료비와 통신비의 비중은 「매우어려움」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문화

〈표 8〉 주관적 경제상태별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세부지출비목 (복수응답) (단위 : %)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식비	13.3	10.6	10.4	15.5	16.2
의료비	8.3	3.2	5.7	8.6	14.7
교육비	26.1	19.1	26.9	29.1	20.8
주거비	9.8	2.1	8.0	9.5	15.9
원리금 상환	20.6	7.4	11.5	28.4	29.2
기타	5.5	8.5	5.2	6.7	3.2
없음	16.4	48.9	32.3	2.2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p < .05$. ** $p < .01$. *** $p < .001$.

비, 내구재 지출비중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나머지 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표 7 참조).

한편, 소비지출 비목별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 여부를 복수응답 형태로 질문한 결과, 「여유로움」집단의 약 절반(48.9%), 「보통」집단은 32.3%, 「조금어려움」집단은 2.2%, 「매우어려움」집단은 0%가 모든 지출비목에서 경제적 부담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주관적 경제상태가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계는 소비지출비목 모두에 경제적 부담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비목은 단연 교육비로 「여유로움」집단도 19.1%가 가계가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하였으며, 「보통」집단은 26.9%, 「조금어려움」집단은 29.1%, 「매우어려움」집단은 20.8%로 나타났다. 또한 식비와 원리금상환 지출

비목의 경우 「조금어려움」과 「매우어려움」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3) 비소비지출 구조

비소비지출은 월평균지출액으로 측정하였으며 (보장성)보험료, 저축액, 부채상환액이 이에 속하며, 이들 모두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보험과 저축은 가계가 미래 경제적 위험 내지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생활에 여유가 없는 가계의 경우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장성)보험료 월평균지출액은 「여유로움」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가계평균(10만6천원)의 약 1.8배, 「보통」집단은 1.2배, 「조금어려움」집단은 0.8배, 「매우어려움」집단은 0.5배 수준을 각각 보였다.

월평균저축액의 경우는 「여유로움」집단이 전체가계평균(29만1천원)의 약 2.3배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집단은 1.5배, 「조금어려움」집단은 0.5배, 「매우어려움」집단은 0.2배 수준을 각각 보였다. 또한 저축액은 모든 집단에서 대부분 예금 혹은 적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월평균부채상환액은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여유로움」집단이 전체가계평균(12만8천원)의 약 0.6배, 「보통」집단이 0.8배 수준을 보인 반면, 「조금어려움」집단은 1.2배, 「매우어려움」집단은 1.4배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생계유지를 위한 부채가 많고 따라서 이를 상환하는 금액도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9〉 주관적 경제상태별 비소비지출 구조($n = 1957$)

단위 : 만원(%)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어려움	매우어려움	F
월평균 비소비지출	52.5	94.5^a	66.0^b	39.5^c	30.5^c	44.5***
월평균보험료(보장성보험)	10.6	18.8^a	13.1^b	8.8^c	5.3^d	36.2***
월평균저축액	29.1	67.8^a	43.2^b	15.6^c	6.9^d	101.2***
· 개인연금	2.9	5.3 ^a	4.1 ^a	2.0 ^b	0.8 ^b	21.0***
· 저축성보험	3.1	7.5 ^a	4.2 ^b	2.0 ^c	0.9 ^c	14.0***
· 예/적금	21.0	46.7 ^a	32.9 ^b	10.1 ^c	3.8 ^c	82.4***
· 계	1.7	4.3 ^a	1.7 ^b	1.5 ^b	1.4 ^b	2.0
· 기타	0.4	4.0 ^a	0.4 ^b	0.1 ^b	0.0 ^b	7.8***
저축률(%) (저축액/가계소득)	14.8	22.0	18.3	9.4	5.8	-
월평균부채상환액	12.8	7.9^c	9.6^b	15.1^a	18.3^a	5.7**
· 금융기관부채	10.3	5.9 ^c	8.5 ^b	11.7 ^a	13.7 ^a	4.4**
· 비금융기관부채	0.5	0.0	0.4	0.3	0.9	1.2
· 개인적으로 빌린 돈	1.6	0.9	0.4	2.7	2.6	1.3
· 기타	0.5	1.1	0.3	0.4	1.2	2.0
부채상환률(%) (부채상환액/가계소득)	6.5	2.6	4.1	9.1	15.3	-

** $p < .01$. *** $p < .001$.

〈표 10〉 주관적 경제상태별 월평균보험료, 저축액, 부채상환액 유무

단위 : 가계수(%)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χ^2
월평균 보험료	있음	1172(59.9)	71(71.7)	598(69.0)	378(56.4)	125(38.9)	97.6***
	없음	785(40.1)	28(28.3)	269(31.0)	292(43.6)	196(61.1)	
	계	1957(100.0)	99(100.0)	867(100.0)	670(100.0)	321(100.0)	
월평균 저축액	있음	1069(54.6)	82(82.8)	624(72.0)	293(43.7)	70(21.8)	308.6***
	없음	888(45.4)	17(17.2)	243(28.0)	377(56.3)	251(78.2)	
	계	1957(100.0)	99(100.0)	867(100.0)	670(100.0)	321(100.0)	
월평균 부채 상환액	있음	719(36.7)	18(18.2)	262(30.2)	295(44.0)	144(44.9)	55.0***
	없음	1238(63.3)	81(81.8)	605(69.8)	375(56.0)	177(55.1)	
	계	1957(100.0)	99(100.0)	867(100.0)	670(100.0)	321(100.0)	

*** $p < .001$.

〈표 11〉 주관적 경제상태별 저축의 목적(복수응답)

(단위 : %)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자녀의 교육비	22.0	22.9	21.4	22.6	22.2
주택마련	11.2	6.7	12.9	10.9	6.6
내구구입비	0.6	0.6	0.6	0.6	1.0
경조사비	4.6	6.1	4.4	4.7	4.3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	31.1	25.7	28.7	34.4	37.1
노후생활대비	25.2	29.6	27.6	22.2	19.9
여행 및 여가생활	1.2	2.8	1.7	0.2	0.3
사업(투자)자금마련	1.7	2.2	1.4	2.1	2.0
차입금상환목적	2.2	2.8	1.0	2.4	6.6
기타	0.1	0.6	0.2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보험료지출이 전혀 없는 가계를 주관적 경제상태별로 살펴본 결과,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여 「매우어려움」집단 가계의 약 61%가 보험료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의 경우 그 상황은 더욱 나빠져서 「매우어려움」집단 가계의 약 78%가 저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로움」이나 「보통」집단의 경우도 약 30% 정도가 보험료 지출이 전혀 없었으며,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비율도 「여유로움」집단은 약 17%, 「보통」집단은 약 28%로 나타났다. 부채상환액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여유로움」집단은 약 80%의 가계가 월부채상환액이 전혀 없는 반면, 「매우어려움」집단은 55%가 월부채상환액이 전혀 없었다(표 10 참조).

한편, 저축의 목적을 복수응답 형태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집단에서 20% 이상의 가계가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제적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11 참조).

4) 자산 · 부채구조

자산은 총자산을 비롯하여 이를 구성하는 유동자산, 부동산 자산 수준 모두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수준을 높이며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총자산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은 전체가계평균(1억1,239만7천원)의 약 1.9배, 「보통」집단은 1.2배, 「조금어려움」집단은 0.8배, 「매우어려움」집단은 0.6배 수준을 각각 보였다.

유동자산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은 전체가계평균(1,229만원)의 3.0배, 「보통」집단 1.4배, 「조금어려움」집단 0.5배, 「매우어려움」집단 0.2배 수준을 각각 보이며 집단간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아울러 각 집단 모두 유동자산은 은행예금 내지 저축성 보험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부동산 자산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은 전체가계평균(1억10만원7천원)의 약 1.7배, 「보통」집단은 1.1배 수준, 「조금어려움」집단은 0.9배, 「매우어려움」집단은 0.6배 수준을 각각 보였다. 아울러 모든 집단에서 거주주택이 부동산자산의 가장 큰 구성비율을 보였다(표 12 참조).

총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동자산과 부동산자산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은 집단일수록 부동산자

〈표 12〉 주관적 경제상태별 자산·부채구조(n = 1957)

단위 : 만원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어려움	매우어려움	F
총자산	11239.7	21001.0^a	13256.8^b	9404.6^c	6611.6^d	55.8
유동자산	1229.0	3696.1^a	1760.4^b	652.2^c	236.6^d	126.3
· 은행 예금	908.3	2713.9 ^a	1350.9 ^b	437.6 ^c	138.3 ^d	113.4 ^{***}
· 저축성 보험	131.4	409.2 ^a	166.8 ^b	91.3 ^c	33.6 ^c	27.7 ^{***}
· 투자자산	92.4	319.2 ^a	136.0 ^b	37.4 ^c	19.3 ^c	12.0 ^{***}
· 아직 타지 않은 계	13.1	34.0	17.2	10.4	1.0	2.2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78.4	219.7	81.9	71.6	39.6	1.9
· 기타	5.5	0.0	7.5	4.0	4.8	0.7
부동산	10010.7	17304.9^a	11496.4^b	8752.3^c	6375.0^d	34.7^{***}
· 주택의 시가	5540.7	8428.3 ^a	6638.5 ^b	4832.3 ^c	3163.6 ^d	24.2 ^{***}
· 거주주택을 위한 전(월)세/보증금으로 지불한 돈	1901.7	1755.4	1964.7	2005.2	1560.5	2.0
· 거주주택 이외 소유부동산 시가	2251.7	6505.1 ^a	2538.1 ^b	1663.4 ^b	1393.9 ^b	16.5 ^{***}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사용을 위한 전(월)세/보증금으로 지불한 돈	316.7	616.2 ^a	355.1 ^b	251.5 ^b	257.0 ^b	3.1 [*]
총부채	1896.2	2149.9	1710.1	1975.0	2156.3	13.4
· 금융기관	1131.7	677.9 ^b	866.8 ^b	1363.0 ^a	1504.3 ^a	7.2 ^{***}
· 비금융기관	37.3	10.1	34.1	37.1	54.8	0.7
· 개인적으로 빌린 돈	151.0	44.4 ^b	48.7 ^b	165.1 ^b	430.5 ^a	18.7 ^{***}
· 전(월)세금/보증금 형태로 받은 돈	557.8	1414.6 ^a	731.7 ^b	397.6 ^c	158.0 ^c	10.3 ^{***}
·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9.6	2.8	12.8	6.9	8.7	0.1
· 기타	8.9	0.0	16.1	5.2	0.0	1.0
순자산	9343.5	18851.1^a	11546.7^b	7429.6^c	4455.3^d	72.8^{***}

*p < .05. **p < .01. ***p < .001.

〈표 13〉 주관적 경제상태별 유동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
단위 : %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어려움	매우어려움	F
총자산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동자산	12.9	22.8 ^a	17.7 ^b	8.2 ^c	6.5 ^c	57.9 ^{***}
부동산	87.1	77.2 ^c	82.3 ^b	91.8 ^a	93.5 ^a	57.9 ^{***}

***p < .001.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유동자산의 비중이 높았다. 유동자산 비중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이 22.8%인 반면 「매우어려움」집단은 6.5%에 불과하였다. 반면 부동산 비중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이 77.2%인 반면 「매우어려움」집단은 93.5%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총부채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는 부채 하위항목을 통해 일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여유로움」과 「보통」집단은 상대적으로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 형태로 받은 돈」 형태의 부채비중이 높은 반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전(월)세의 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자산 보유성 부채로 거주

주택을 제외한 실물자산을 보유한 가계에만 해당되는 반면, 「금융기관」이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은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성 부채가 아닌 경우, 대부분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성 부채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쁜 집단일수록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비중이 높은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사채 등이 이자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부채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값으로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며 각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유로움」집단은 전체가계평균(9,343만5천원)의 약 2.0배, 「보통」집단은 1.2배 수준을 보인 반면, 「조금어려움」집단은 0.8배, 「매우어려움」집단 0.5배 수준을 각각 보였다.

나아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를 살펴본 결과, 유동자산의 경우 「여유로움」집단에서는 93.9%의 가계가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비율이 줄어들어 「조금어려움」집단에서는 56.4%, 「매우어려움」집단에서는 32.7%만이 유동자산을

〈표 14〉 주관적 경제상태별 유동자산, 부동산자산, 부채의 보유/미소유 가계

단위 : 가계수(%)

		전체	여유로움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χ^2
유동 자산	보유	1297(66.3)	93(93.9)	721(83.2)	378(56.4)	105(32.7)	335.4***
	미보유	660(33.7)	6(6.1)	146(16.8)	292(43.6)	216(67.3)	
	계	1957(100.0)	99(100.0)	867(100.0)	670(100.0)	321(100.0)	
부동 자산	보유	1917(98.0)	99(100.0)	854(98.5)	661(98.7)	303(94.4)	25.4***
	미보유	40(2.0)	-	13(1.5)	9(1.3)	18(5.6)	
	계	1957(100.0)	99(100.0)	867(100.0)	670(100.0)	321(100.0)	
총 부채	보유	981(50.1)	42(42.4)	379(43.7)	371(55.4)	189(58.9)	33.8***
	미보유	976(49.9)	57(57.6)	488(56.3)	299(44.6)	132(41.1)	
	계	957(100.0)	99(100.0)	867(100.0)	670(100.0)	321(100.0)	

*** $p < .001$.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역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유로움」집단에서는 모든 가계가 보유하고 있었고 「매우어려움」집단도 94.4%의 가계가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자산에 전(월)세/보증금으로 지불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만한 결과는 아닐 것이다.

부채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부채를 보유한 가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유로움」집단의 부채 보유가계 비율이 42.4%인 반면 「조금어려움」집단 55.4%, 「매우어려움」집단 58.9% 등으로 나타났다.

3. 재무비율에 기초한 경제구조

주관적 경제상태별로 분류한 가계집단별로 경제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재무비율에 기초하여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정성지표

(1) 가계수지지표

가계수지지표는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생활비의 비중으로 가계의 소비성향과 적자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지표로서 그 값이 0.9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바람직한 상태인 낮은 값을 보였으며, 「여유로움」집단은 0.58, 「보통」집단은 0.75, 「조금어

려움」집단은 0.93, 「매우어려움」집단은 1.11을 나타냈다. 아울러 0.9라는 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아 「여유로움」집단은 90%를 초과하는 반면, 「매우어려움」집단은 4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여유로움」집단의 경우, 소득과 지출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이 90%가 넘는 반면, 「매우어려움」집단은 소득수준이 「여유로움」집단의 약 40%, 지출수준이 약 6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면서도 수치상태지표 기준을 만족하는 가계가 45% 정도 즉, 적자가계가 약 55%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비상자금지표

비상자금지표는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이 월평균생활비의 몇 배가 되는 지로 측정하며 그 값이 1.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집단간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여유로움」집단의 비상자금지표 값은 약 26.9 즉, 월평균생활비의 26배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인 소득중단사태가 발생하여도 2년 이상을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보통」집단은 「여유로움」집단의 절반수준(13.5)으로 낮았으며 「조금어려움」집단은 또 다시 절반수준인 6.6, 「매우어려

〈표 15〉 주관적 경제상태별 가계수지지표(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 준거기준 : < 0.9

	전체 (N = 1957)	여유로움 (N = 99)	보통 (N = 867)	조금어려움 (N = 670)	매우어려움 (N = 321)	F/χ^2
Mean	0.859	0.581 ^d	0.747 ^c	0.927 ^b	1.108 ^a	23.0***
%meeting ¹⁾	69.9	90.9	81.4	63.4	45.5	179.7***

1) %meeting :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집단별 백분율
(예 : 「여유로움」집단 중 90.9% 가계가 준거기준 (< 0.9)을 만족한다는 의미임)

*** $p < .001$.

〈표 16〉 주관적 경제상태별 비상자금지표(유동자산/월평균생활비)

- 준거기준 > 1

	전체 (N = 1957)	여유로움 (N = 99)	보통 (N = 867)	조금어려움 (N = 670)	매우어려움 (N = 321)	F/ χ^2
Mean	10.027	26.953 ^a	13.482 ^b	6.610 ^c	2.608 ^d	64.8***
%meeting ¹⁾	60.5	92.9	79.9	48.4	23.4	407.1***

1) %meeting :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집단별 백분율
(예: 「여유로움」집단 중 92.9% 가계가 준거기준 (> 1)을 만족한다는 의미임)

***p < .001.

움」집단은 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 역시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유로움」집단은 92.9%의 가계가 비상자금지표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보통」집단의 79.9%, 「조금어려움」집단의 48.4%, 「매우어려움」집단의 23.4%의 가계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금어려움」과 「매우어려움」집단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가 「여유로움」집단 월평균생활비의 약 60%~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집단의 비상자금 수준의 문제는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위험대비지표

위험대비지표는 월평균가계소득 중 월평균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기준은 0을 초과하되, 0.2 즉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처럼 상한과 하한의 기준이 동시에 있는 경우 산술평균으로 각 집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만을 살펴보았으며, 「여유로움」집단은 67.7%, 「보통」집단은 65.5%, 「조금어려움」집단은 51.2%, 「매우어려움」집단은 35.5%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집단별 평균을 산출한 결과, 모든 가계가 약 0.07로 통

〈표 17〉 주관적 경제상태별 위험대비지표(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 준거기준 : 0초과 ~ 0.2이하

	전체 (N = 1957)	여유로움 (N = 99)	보통 (N = 867)	조금어려움 (N = 670)	매우어려움 (N = 321)	F/ χ^2
%meeting ¹⁾	55.8	67.7	65.5	51.2	35.5	105.1**
meeting Mean ²⁾	0.070	0.067	0.069	0.071	0.069	0.3
no meeting Mean ³⁾ (> 0.2인 경우)	0.313	0.373	0.297	0.313	0.332	0.5

1) %meeting :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집단별 백분율
(예: 「여유로움」집단 중 67.7% 가계가 준거기준(0초과 ~ 0.2이하)을 만족한다는 의미임)

2) meeting Mean :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평균

3) no meeting Mean : 준거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가계의 평균
위험대비지표의 경우 준거기준이 "0초과 ~ 0.2이하"이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지 않는 가계의 평균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험대비지표가 0인 가계와 0.2를 초과하는 가계를 구분하였으며 이 중 위험대비지표가 0.2를 초과하는 가계만의 평균을 제시하였음

***p < .001.

〈표 18〉 주관적 경제상태별 위험대비지표 meeting / no meeting 가계의 분포

	전체 (N = 1957)	여유로움 (N = 99)	보통 (N = 867)	조금어려움 (N = 670)	매우어려움 (N = 321)	χ^2	
%meeting ¹⁾	55.8	67.7	65.5	51.2	35.5	105.1***	
%no meeting ²⁾	= 0	40.1	28.3	31.0	43.6		61.1
	>0.2	4.1	4.0	3.5	5.2		3.4
	계	44.2	32.3	34.5	48.8		6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 %meeting :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집단별 백분율
(예: 「여유로움」집단 중 67.7% 가계가 준거기준(0초과 ~ 0.2이하)을 만족한다는 의미임)

2) %no meeting Mean : 준거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가계의 집단별 백분율

***p < .001.

〈표 19〉 주관적 경제상태별 부채부담지표(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 준거기준 : < 0.25

	전체 (N = 1957)	여유로움 (N = 99)	보통 (N = 867)	조금어려움 (N = 670)	매우어려움 (N = 321)	F/x ²
Mean	0.067	0.021 ^c	0.039 ^c	0.085 ^b	0.123 ^a	17.8***
%meeting ¹⁾	92.9	98.0	96.9	91.0	84.7	61.1***

1) %meeting :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집단별 백분율
(예 : 「여유로움」집단 중 98.0% 가계가 준거기준(< 0.25)을 만족한다는 의미임)

***p < .001.

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계 중 위험대비지표의 값이 0의 값(보장성보험료 지출이 전혀 없는 가계)을 제외한 0.2 이상의 값을 가진 가계만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0.3 이상으로 네 집단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0.2 이상의 값을 가진 가계는 전체가계의 약 4%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17, 18 참조).

(4) 부채부담지표

부채부담지표는 월평균부채상환액이 월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가로 측정되며, 이 지표는 부채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고 월평균부채상환액이 월평균가계소득의 25%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여유로움」집단은 가계소득의 2.1%만을 부채상환액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보통」집단은 3.9%, 「약간어려움」집단은 8.5%, 「매우어려움」집단은 12.3%를 부채상환액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유로움」집단은 98.0%로 대부분의 가계가 준거기준을 만족하고 있었고 「보통」집단은 96.9%, 「조금어려움」집단은 91.0%, 「매우어려움」집단에서도 84.7%의 가계가 준거기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2) 성장성지표

(1) 저축성향지표

저축성향지표는 저축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

정되며 0.1 즉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여유로움」집단의 경우 연간가처분소득의 21.6%를, 「보통」집단은 16.6%를 각각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가계자본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어려움」집단과 「매우어려움」집단의 경우는 각각 소득의 8.7%와 4.1%를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여유로움」집단이 63.6%, 「보통」집단이 54.0%인데 반해 「조금어려움」집단은 「보통」의 1/2 수준인 26.1%만이 준거기준을 만족하고 있었고, 「매우어려움」집단은 「보통」의 약 1/5 수준에 해당되는 11.5%만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투자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는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되며 분산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이 지표의 값이 0.9 미만 즉 부동산자산이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미만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여유로움」집단은 총자산의 약 77%를, 「보통」집단은 약 80%를 부동산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조금어려움」과 「매우어려움」집단은 약 90.0%를 부동산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 역시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여유로움」집단은 66.7%, 「보통」집단은 52.4%, 「조금어려움」집단은 25.5%, 「매우어려움」집단은 18.1%로 나타났다.

〈표 20〉 주관적 경제상태별 저축성향지표(연간총저축액/연간총소득)

- 준거기준 : > 0.1

	전체 (N = 1957)	여유로움 (N = 99)	보통 (N = 867)	조금어려움 (N = 670)	매우어려움 (N = 321)	F/x ²
Mean	0.121	0.216 ^a	0.166 ^b	0.087 ^c	0.041 ^d	46.9***
%meeting ¹⁾	38.0	63.6	54.0	26.1	11.5	257.3***

1) %meeting :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집단별 백분율
(예 : 「여유로움」집단 중 60.6% 가계가 준거기준(> 0.1)을 만족한다는 의미임)

***p < .001.

〈표 21〉 주관적 경제상태별 투자성향지표(부동자산/총자산)

- 준거기준 : < 0.9

	전체 (N = 1957)	여유로움 (N = 99)	보통 (N = 867)	조금어려움 (N = 670)	매우어려움 (N = 321)	F/x ²
Mean	0.861	0.773 ^c	0.821 ^b	0.907 ^a	0.900 ^a	32.8***
%meeting ¹⁾	38.3	66.7	52.4	25.5	18.1	108.2***

1) %meeting :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집단별 백분율
(예 : 「여유로움」집단 중 66.7% 가계가 준거기준(< 0.9)을 만족한다는 의미임)

***p < .001.

〈표 22〉 주관적 경제상태별 유동성지표(유동자산/총자산)

- 준거기준 : > 0.1

	전체 (N = 1957)	여유로움 (N = 99)	보통 (N = 867)	조금어려움 (N = 670)	매우어려움 (N = 321)	F/x ²
Mean	0.127	0.228 ^a	0.176 ^b	0.081 ^c	0.062 ^c	60.3***
%meeting ¹⁾	37.1	66.7	52.0	24.3	14.3	237.9***

1) %meeting :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집단별 백분율
(예 : 「여유로움」집단 중 66.7% 가계가 준거기준(> 0.1)을 만족한다는 의미임)

***p < .001.

(3) 유동성지표

유동성지표는 총자산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되며 총자산 중 10%를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적어도 총자산의 10% 이상을 유동자산의 형태로 보유해야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분석결과, 「여유로움」집단은 총소득의 22.8%를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통」집단은 총소득의 17.6%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나 자산소득 의존성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의 증대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기자금의 역할도 하여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조금어려움」집단은 총자산의 8.1%를, 「매우어려움」집단은 6.2%만을 유동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자산증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나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바람직한 가계재정을 운영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여유로움」집단은 66.7%, 「보통」집단은 52%, 「조금어려움」집단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4.3%만이, 「매우어려움」집단은 불과 14.3%의 가계만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가계의 경제상태를 가계 스스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기초로 ‘여유롭다’ 라고 응답한 가계집단을 비롯하여 ‘보통이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라고 응답한 가계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 가계 경제구조 특성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가 스스로 평가한 경제상태 수준과 객관적인 경제상태는 상당히 일치하는 특성을 보였다. 즉, 주관적으로 경제상태를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가계일수록 객관적인 경제구조 역시 바람직한 경향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상태별로 분류한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유동자산, 월평균저축액, 월평균보험료지출액 등과 같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경제요소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별 가계집단간 편차가 매우 큰 반면, 가계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재의 특성을 가진 소비지출액 특히 식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통신비 등은 편차가 작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주관적으로 경제상태를 평가할 때 ‘보통’ 이상의 수준이라고 응답한 가계(‘보통’ 혹은 ‘여유롭다’ 라고 평가한 가계)는 모든 경제요소에 걸쳐 전체가계의 객관적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식비의 경우에만 주관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라고 평가한 가계집단의 평균지출수준이 가계 전체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으로 경제상태를 평가할 때 평가 주체는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포함이 되겠지만,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상대적인 수준을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객관적인 경제수준과 맥을 같이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상대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계일수록 미래 경제적 위험에 대처하는 힘이 취약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이들 가계의 낮은 저축률과 낮

은 보험료지출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셋째, 공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별 집단간 차이가 없었던 반면, 사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지출액, 지출비중 모두 「매우어려움」집단을 제외한 세 집단이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집단에서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출비목 역시 교육비로 「여유로움」집단도 19.1%가 가계가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하였으며, 저축의 목적 역시 자녀교육비를 위해 저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주관적 경제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제상태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모든 가계가 자녀의 사교육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특성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선이 요구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넷째, 재무비율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분석한 결과 역시 가계가 스스로 평가한 경제상태 수준과 객관적인 경제상태는 상당히 일치하는 특성을 보였다. 즉, 주관적으로 경제상태를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가계일수록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도 높고, 준거기준 만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가계의 재무비율지표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전체가계평균값 보다 높은 경제상태를 보여 역시 주관적인 경제상태 평가시 가계는 상대적인 수준을 고려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조금어려움」 집단과 「매우어려움 집단」에 있어서 안정성지표 중 위험대비지표와 비상자금지표, 그리고 성장성 지표 모두(저축성향, 투자성향, 유동성) 바람직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는 대부분 낮은 저축율과 보험료지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상자금지표는 주관적 경제상태별 집단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적어도 비상자금 수준이 현재 생활비의 13.5배 즉 약 1년 이상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일 때 경제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월평균생활비의 1배가 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준거기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론을 기초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수준은 객관적 경제 수준에 상대적인 의미가 가미된 수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경제상태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가계일지라도 절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작은 액수라도 저축이나 보험을 통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재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주관적인 경제상태 평가에 상대적인 요소 즉, 심리

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면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나눔을 생활화 하는 등 나눔 혹은 기부문화의 확산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부자(혹은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입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재무비율에 기초한 결과를 해석할 때 다음의 사항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재무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분모)이 전체가계의 평균값이 아니라 해당 가계의 값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예를 들어 가계수지지표의 경우, 본 연구에서 「여유로움 집단」과 같이 소득과 지출 수준이 모두 높은 가계와 「매우어려움」 집단처럼 모두 낮은 가계가 각각 지표의 값이 동일하다고 해서 경제상태가 동일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다만 현재 소득이 지출을 어느 정도 감당하느냐 하는 정도로 의미를 두어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소득과 소비지출이 분모나 분자로 포함되는 재무비율을 해석할 때, 객관적인 소득과 지출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지표의 값이나 지표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비율로 경제상태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전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제언은 생략하고자 한다.

다섯째, 재무교육시 자산의 유동성에 대한 중요성과 분산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주관적 경제상태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비용을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출산을 저하와 함께 새로운 주택수요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의 유동성은 물론 투자측면에서도 부동산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재무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이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주관적 경제상태를 평가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롭거나 어려운가를 통해 주관적 경제상태를 평가하였다. 이는 만족도의 개념이 질적 측면이 측정되는 것에 비해 여유롭다 내지 어렵다라는 개념은 소득 혹은 자산의 양적 규모 측면이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김년희(2000).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년희, 안승철(1999). 재무적 만족에 대한 가계의 주관적 경제 불만 및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 *경영교육논총*, 제 19집, 257-272.
- 김민정, 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18(3), 87-110.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연정(1998).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98년 학술발표 회자료집*, 37-63.
- 김성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 김지경(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1), 1-17.
-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재정상태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 배희선, 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3), 167-179.
- 백은영(2004). 소비자의 객관적, 주관적 재정복지의 측정 - 미국 베이비붐 코호트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2004년 춘계 학술발표회자료집*, 105-113.
- 성영애, 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15(3), 155-171.
- 성지미, 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130.
- 양세정(2003). 맞벌이 가구의 소득계층별 경제구조 분석.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7, 1-20.
- 양세정(2004). 맞벌이 가구의 가계특성요인분석.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8, 1-20.
- 양세정(2005). 맞벌이 소비지출유형별 가계경제구조 분석.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0, 1-23.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여운경(1999). 가계은퇴자산의 충분성. *소비자학연구*, 10(4), 41-59.
- 여운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21-36.
- 이상협(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71-84.
-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숙, 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6.
-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최현자(2004). 재무비율로 평가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상태. *소비문화연구*, 7(3) 59-84.
- 임정빈, 김윤희(2000).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63-176.
- 정순희, 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13-120.
- 최윤지,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2.
- 한수진, 서지수(2008). 노인가계 유형별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83-101.
- 허은정, 김우성(2003). 도시가계의 레저지출과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4(1), 59-79.
- Furnham, A., & Argyle, M.(1998). *The Psychology of Money*. London: Routledge.
- Hafstrom, J. L., & Dunsing, M. M.(1973).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2), 119-132.
- Williams, F. L., Nall, M., & Deck P. Z.(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185-196.

접 수 일 : 2008년 8월 15일

심사시작일 : 2008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0월 29일